

하용조 목사 시편 연구 7

(1996. 12.)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그동안 찬양의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탄원시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시편을 공부해야 하는데, 오늘은 감사시편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감사·탄원시

시편을 보면 찬양시와 탄원시가 있는데 찬양시보다는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탄원’은 하소연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원수들이 날 잡아먹으려 하고, 진실한 뜻은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다 망하고 병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소연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시편을 가리켜 ‘탄원시편’이라고 합니다.

찬양과, 감사, 탄원시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우주, 꽃 이라든지 산, 이런 것들을 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시편입니다.

감사시편은 자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개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고와 역경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편에서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감사시편에서는 고백, 선언, 느낀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시편은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고, 감사시편은 나의 감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탄원시와 찬양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고난가운데서 구원을 호소하고 구원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소연하고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고 오열 하는 가운데 구원의 빛이 와서 ‘안심하라. 놀라지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은혜를 받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따라서 탄원시는 부르짖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탄원시에는 ‘내가 부르짖사오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감사시에는 ‘내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법적 차이도 있습니다.

감사시는 보통 자기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본론에서는 개인적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식입니다. 결론에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지나온 날들 속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은 18편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멋없이 컴퓨터처럼 읽지 마시고 감정을 넣어서 내 고백처럼 한절 한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2장에 시편 18편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상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시편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인 시를 고백을 할 때는 시를 통해 그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과거와 아픔 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냥 지식을 전달하면 감동이 없고,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말은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떠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말이 많다 하더라도 의미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왜 그가 이런 시를 쓰게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무렵은 다윗의 말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모든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애를 붙들어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집에 가서 ‘사무엘상·하’를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시편 34편을 공부하는데 그 시편은 사무엘상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죽는 것까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해외로 내쫓고,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내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쫓겨 다녀야 합니까? 나는 왜 산 속에 숨어야 합니까? 나는 왜 굴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는 잠을 잘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굴속에서, 모함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때그때 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들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하’에는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만사형통할 것인가?

왕이된 다윗 더 기막힌 일을 겪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되기 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겪습니다.

사울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복수가 일어나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뺏겼던 언약궤를 되찾아 옵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옴에 따라 다윗은 간절한 소망, 즉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열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는 그의 생애의 걸림돌들이 나타납니다. 시작은 바로 밋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중년남자가 겪는 위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곤두박질하며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을 다윗이 그대로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괴롭히면 자기가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행복을 추구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자기 자식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 형제끼리 간음 사건이 생기고 살인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갖는 부모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밋세바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쁜 것입니다. 자식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인들, 장관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다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을 다윗이 겪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다윗과 화해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하면서 애간장이 끓어지도록 옵니다. 참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강간을 합니다. 그런 수치를 다윗이 겪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잘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고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우는 아버지 다윗. 그 외 여러 가지 전투를 겪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구든지 다 이런 두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는 고난이요, 또 하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22장이 기록되어집니다.

피할바워요,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이제 시편 18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2절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것은 일정 흠없이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시인이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시일뿐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순결한 소녀 같은 마음뿐이지,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더기로 점철되어 있고 후회와 한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이 20세가 넘은 사람치고 인생이 깨끗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신앙이란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원수 앞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실수로 여러 가지 인생의 기가 막힌 과정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녹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시편의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울며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셨고 보호하셨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대하셨고 이렇게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편의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위로와 치유와 용기와 회복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생에 있어서, 진흙탕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흙탕을 건너는데 돌이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수없이 화살을 쏘고, 음해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분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주님은 나의 만세반석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건지시는 자입니다. 진흙탕에 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라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보면 과거가 회상이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 그 때는 내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가 나를 막았습니다.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나를 뒤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는 화살에 맞아 죽어야만 했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탄조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은 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는 뿔로 싸웁니다. 뿔이 강한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저기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10가지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못되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면 무서운 것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교통사고 나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 밖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천박하고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축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 가지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이 열 가지 복이 다 내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누에고치에서 실이 풀리듯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술술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노를 더디 내시고, 내가 죄짓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혼을 가르쳐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쳐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그런 풍성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미술로 만들었고, 최고의 음악과 문학으로 그분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다 자기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누가 때려도 ‘할렐루야’, 꼬집어도 ‘할렐루야’라고 하십시오.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니다.

나를 매고 묶는 사망과 울무의 줄

4절에 보니 ‘사망의 줄’이 자기를 꼬꽂 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5절의 ‘음부의 줄’은 죽음의 줄과 같은 것입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을 정직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무의미합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부조리합니다.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못 삽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역사는 모순덩어리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그러한 혼돈가운데서, 무의미가운데서, 부조리가운데서, 절망가운데서, 퇴로도 출구도 없는 벽 앞에서 성에 갇힌 존재입니다.

인간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루이제린저처럼 칼바도스 술을 마시면서 가스빛 햇빛아래서 방황하기도하고, 또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끌고 온 것이 해변에 와보니 뼈다귀에 불과했다는 굉장한 줄 알았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의 환상 인간은 오아시스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허무주의와 무의미를 경험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영원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참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태어났다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약에서 죽음이란 삶의 끝이지만, 구약에서 죽음의 개념은 죽음의 두려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겪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영원한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생겼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도 구약에는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생명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엄성

6절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울무들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실재를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도마 위에 내 목을 내놓고 있는데 누가 내려치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런 것을 경험했지요. 그때부터 그가 생명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잘못하면 아닌 것 같았다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낭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원수의 칼이 내 심장을 막 쏘으려 할 때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감싸고 구

해주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사막에 내가 서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수 있으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라고 사도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은 감사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가냘픈 기도소리를 하나님은 천둥처럼 들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네 기도 따위는 듣지 않으실꺼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4백년 종살이 할 때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히 평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고통스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소연, 억울함, 분함, 모두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다"

이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을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니 그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불 속에 숯불이 타고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땅으로 내려오면 그 발아래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름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숨는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뽀뽀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뽀뽀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죄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불 말을 보는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마라 세상 군대를 걱정하지마라. 블레셋 군대나 문화를 보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줄 아느냐? 하늘의 불수레를 모르느냐? 불말을 모르느냐? 이런 것을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포로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 고통 중에 두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걱정하지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신 분 인줄 아십니까? 죽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바꾸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죽을 때는 죽고, 살 땐 사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

을 택해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밀이 드러나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도 실제로 이것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인생의 뼈아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호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게 아니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의를 사모하고 마음이 정직한자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의를 사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직한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활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특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좀 실수하고 부족한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뱀과 같이 교활해서 하나님과 자꾸 게임을 하려하는 이렇게 찢러보고, 저렇게 찢러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제파악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으니"

의와 깨끗한 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진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영혼을 소유한 다윗이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와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는 나의 '의' '깨끗함'이, 21절에는 '여호와와 도'가, 22절에는 '여호와와 규례'가 나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하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사실 자식들한테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여자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전반적인 영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그렇게 흙탕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손이 깨끗하면 내 의를 따라 갚으십시오. 주님은 내 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본의 아니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맘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이 죄인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이 뛰게 하셨습니다. 높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 수치를 감싸주셨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가 내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끊어지고, 원수가 끊어지고, 복수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41, 42절입니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수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43~5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름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 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여호와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난과 질병과 절고와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햇불이 되시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